



도심의 소음을 뒤로한 채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고요한 숲 길을 걷다 보면 전시관이 나타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번 봄, 도시를 벗어나 외곽에 자리한 아름다운 미술관 여섯 곳을 소개한다. 전시도 좋고, 풍경도 좋은 곳. 예술과 자연이 함께 머무는 특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정리. 편집실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전시: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9기 결과보고
날짜: 2025.2.28.~5.6.
주소: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서민 화가 박수근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미술관이다. 작가의 고향에 세워진 이곳은 그의 대표작들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도 함께 선보인다. 현재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9기 작가들의 결과보고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현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한국적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미술관을 둘러싼 조용한 마을 풍경과 박수근 공원의 고즈넉한 산책길은 봄 햇살과 함께 더욱 따뜻하게 다가온다.

포항시립미술관

전시: 박수철, 오래된 꿈
날짜: 2025.1.21.~5.11.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10



경북 포항의 '포항시립미술관'은 바다와 맞닿은 환호공원 내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미술관에서는 현재 포항 지역의 원로 작가 박수철의 회고전 '오래된 꿈'이 열리고 있다. 회화 작품과 더불어 작가의 삶을 담은 아카이브를 통해 예술과 인생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전시를 감상한 뒤에는 미술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산책로를 따라 봄바람을 만끽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뮤지엄 산

전시: 라스트 제임스 터렐 날짜: 상설전시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어우러진 미술관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이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현재는 '제임스 터렐'의 빛과 공간을 활용한 상설 전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명상관과 워터가든, 조각공원까지 감상할 수 있어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미술관을 둘러싼 숲길과 수조에 반사된 햇살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작품이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_ 탐동 시네마

전시: 권오상: 조각(에 관한) 리포트 날짜: 24.11.12.~25.9.21.
주소: 제주 제주시 탐동로 14



제주에 위치한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탐동 시네마'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현대미술관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이다. 현재는 조각가 권오상의 개인전 '조각(에 관한) 리포트'가 진행 중이며, 일상적인 소재들을 통해 조각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의 시도가 인상 깊다. 미술관을 둘러보며 제주의 바람과 햇살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여행 중 들르기에도 손색없는 곳이다.

양평군립미술관

전시: 신소장품전 날짜: 2025.3.7.~5.6.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경기 양평에 위치한 '양평군립미술관'은 북한강변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현대미술관이다. 현재 '신소장품전'을 통해 미술관이 새롭게 확보한 다양한 현대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전시 관람 후 미술관 주변의 카페 거리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기에 제격이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 짧은 힐링 여행지로도 손꼽힌다.

영은미술관

전시: 선 그리고 색, 선을 추상 날짜: 2025.3.29.~6.22.
주소: 경기 광주시 청석로 300



경기도 광주 깊은 숲속에 자리한 '영은미술관'은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현대미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들의 창작 스튜디오와 전시관이 오솔길을 따라 이어져 있어 예술과 자연이 나란히 걷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봄날에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과 야외 조각 작품들이 어우러져, 전시를 감상하는 일상이 마치 한 편의 예술이 되는 듯한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마음을 맑게 비워준다.